Entertainment p/18

거수경례만 하고 잠수탄 비

메트로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제2770호 www.metroseoul.co.kr

News p/02

'기체결함 가능성' 첫 제기

"꼬끼오" 닭들의 비명 삼계탕집 즐거운 비명 초복을 사흘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삼계탕 집 앞에 손님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덕 장맛비에 킬힐출근·장화퇴근

직장인들, 비상용 레인부츠·여분의 양말 필수품… 샌들 출근한 뒤 구두 갈아신는 남성도 늘어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장마와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견디려는 직장인들의 노력이 출퇴근 패션을 바꿔놓고 있다.

요즘 오피스가에는 발목이 짧은 스타일부터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까지 형형색색 레인부츠를 신은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때 '모내기 패션' '수산시장 장화'로 치부됐던 레인부츠가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데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때문이다.

벤디자이너 이진희(27·여)씨는 "예상치 못하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 매일 쇼핑백에 레인부츠를 담아 갖고 다닌다"며 "최근 시간 즈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은 레인부츠를 갈아 신으려는 여직원들로 북적인다"고 말했다.

꽉 막힌 정장 구두를 신어야 하는 남성들에게 여분의 양말은 필수품이 됐다. 비에 흠뻑 젖은 구두에 신문지를 채워 말리는 동안엔 사무실 전용 슬리퍼를 신고 일한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오후 6시 '땡' 하면 꺼지는 에어컨. 사무실 실내 온도는 툭하면 30도를 훌쩍 넘긴다. 이 바람에 남자 직원들의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다.

3년차 직장인 차승철(31·남)씨는 일주일 내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한다. 차씨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시원한 옷차림에 업무 효율도 오르고 팀 분위기도 밝아졌다"며 "비 오는 날엔 구두 대신 샌들을 신기도 한다"고 밝혔다.

멋을 아는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짧아서나 입을 법한 '골미잡힌 바지'가 인기다.

통이 넓은 배기 팬츠 스타일로 바람이 잘 통해 일명 '냉장고 바지'라고 불린다. 그동안 주로 실내복으로 애용됐던 것이 최근 디자인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외출복으로 외출했다.

◆ 패션업계 매출 쑥쑥 '냉감 소재' 아이템 잇따라 선보여

끈질긴 장마 그리고 무더위와 반말아 싸워야 하는 직장인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소재다. 같은 옷이면 시원한 '냉감' 소재가 각광받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권미정(34)씨는 "지난 주말 시원하면서 비에 젖어도 금세 마르는 시즌 원피스를 여러 벌 구입했다"면서 "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3배 좋다는 와이셔츠를 새롭게 장만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쿨비즈 바람을 타고 관련 상품의 매출이 늘어나자 의류업계는 쿨한 패션 아이템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름 비수기 탈출을 위한 히트 상품 개발에도 혈안이 된 상태다.

실제로 이번 시즌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남성복 브랜드 20곳 중 18곳이 반바지 상품을 내놨다.

신원의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반바지·반팔 셔츠를 선보이고 쿨비즈 오피스룩을 제안했다. 지이크 관계자는 "올여름 시원한 옷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0~15% 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업계 역시 쿨비즈룩에 어울릴 만한 냉감 소재 티셔츠를 주력 아이템으로 내세우며 인기몰이 중이다.

김연희 아이더 상품기획팀장은 "아웃도어 셔츠가 출근복으로도 인기를 얻을 줄 몰랐다"며 "아웃도어 브랜드 특유의 기능성이 소비자들에게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최병장님, 내년엔 PX 더 자주 가지 말입니다" 병사 월급 15% 인상될듯

내년 병사 월급이 15%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와 교통비도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36조8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34조49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원(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1조2870억원(10.9% 증가) 규모다.

내년에 병사 월급은 전체적으로 15% 올라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에 이른다. 병사 월급은 2017년까지 지난해보다 두 배 인상된 20만원대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급식비는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 기준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도 보급한다. 해·공군은 현재 운동모가 보급되고 있다.

음식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진 곳이나 배인 초소 등 군 급식 배급소로부터 40km 떨어진 부대는 민간 냉동·유통 체계로 부식을 배송한다. 신세대 입맛에 맞는 구이·볶음·튀김용 오븐기 235대를 보급하는 것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병사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해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한다.

◆ 예비군 훈련비도 2배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원훈련 48만 명, 일반훈련 1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수해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드라마 '푸른 거탑' 출연진이 10일 시청에서 위촉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의 전략 표적 탐지와 타격능력(킬 체인) 구축을 위해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이 투입된다. /김현준기자 [illegible]

기체결함 가능성 첫 제기

데버라 허스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플라데이인호텔에서 사고 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기 조종사들 "자동속도설정기능 정상작동 안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착륙 사고 원인이 '자동속도설정기능(오토 스로틀)'의 오작동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비행기가 착륙 직전 규정보다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로 활주로에 진입한 원인이 조종사의 조종 미숙뿐 아니라 기체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9일(현지시간) 사고기의 두 기장이 착륙 권장 속도인 137노트(시속 254㎞)로 비행하도록 오토 스로틀을 설정했지만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사고 조사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토 스로틀은 조종사가 입력한 속도를 비행기가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다.

조종사들은 비행 속도와 고도가 설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오토 스로틀 결함으로 인해 500피트 상공에서 인지하고 급히 속도를 높여 기수를 올리려 했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NTSB는 또 동체와 활주로 주변 등 현장 조사 결과 사고기가 착륙용 바퀴, 동체 꼬리 부분 순으로 방파제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는 NTSB가 사고 직후 사고기 조종석 대화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고 원인에 대한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항의했다.

/정윤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달에 국립공원' 흑심 품은 미국

아폴로 착륙지 지정 추진

미국 의회가 달 아폴로 착륙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조짐이다.

도나 에드워드(민주-메릴랜드)와 에디 버니스 존슨(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폴로 달착륙 유산법'(H.R. 2617)을 9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했다.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미국 우주왕복선이 달 표면에 남긴 모든 인공물로 구성된 '아폴로 달착륙 지점 국립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내에 공원을 지정해 내무부와 국립항공우주국(NASA)이 관리하도록 하며 민간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유엔의 '우주 조약'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조약은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어느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illegible]

금연 PC방 "손님 더 늘었어요"

한 PC방 이용객이 PC방내 별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따스아리 제공

대부분 흡연실 따로 설치
퀴퀴한 냄새 안나고 쾌적
담배물고 한판 이젠 옛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PC방 내부에 들어섰지만 PC방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쾌적하고 상쾌한 느낌이다. PC가 놓여있는 테이블 역시 깔끔했다.

그러고 보니 PC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담배를 입에 물고 게임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중앙에 6평 정도와 3평 정도의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방 업주 박희철(39)씨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업주가 별도 설치한 흡연실을 이용하거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 PC방 업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의 반발로 손님이 없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PC방에는 많은 사람이 자리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나 별도의 흡연실 설치 이후 중·고등학생 이용자는 더 늘었다.

"PC방을 다녀오면 교복에 냄새가 배어 있어서 담배 피우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흡연실이 생긴 이후로 그런 오해를 안 받고 담배 연기도 없어서 좋아요."

최진수(16·고등학생)군은 흡연실이 갖추어진 PC방에만 다닌다고 말했다.

성인 이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평소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다는 최영강(26·비흡연자)씨는 "예전에는 PC방을 다녀오면 옷에 밴 담배 냄새 때문에 툴툴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며 "PC방을 더 자주 찾게 됐다"고 전면 금연을 반겼다.

김성진(23·흡연자)씨는 "예전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혹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단 생각에 미안했는데 이제는 흡연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마음껏 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계도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PC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PC방 업주 박씨는 "금연구역 안내 문구가 있어도 PC방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도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PC방 전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스이리 기자

※ 따스아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 블로그(http://blog.daum.net/mohwpr)입니다

웃으며 시작했지만 서호 남측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측 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10일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담에 앞서 서로 악수하고 있다. 남측은 재발 방지 대책, 북측은 공단 재가동을 각각 우선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제3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차상위계층 중증질환 진료비 10월부터 면제

● 10월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의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심혈관질환·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없애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日 말뚝테러범, 윤봉길 의사 유족에 배상해야"

쌍둥이 소녀상? 10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소녀상 의 원형틀인 복각 '위안부 소녀상'이 기존 소녀상과 나란히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도록 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재판부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차도 쪽에 핸드백 맨 중년여성만 노린 날치기

● 차도 가까이 걷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노린 날치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걷는 중년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1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3)씨를 10일 구속했다.

닮아도 너무 닮은 '19세 오원춘'

성폭행 후 목졸라 살해 맨정신 사신 훼손까지

경기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심모(19·무직)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8일 오전 5시28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 투숙해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김모(17)양을 모텔로 불렀다. 심군은 김양을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9시께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커터칼로 모텔 화장실에서 주검을 잔혹하게 훼손해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날 오후 2시7분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발견된 사신이 김양이 맞는지 여부와 함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심군은 9일 오후 8시10분께 김양 부모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10일 오전 12시30분께 자수했다. 고교를 자퇴한 심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철기자 fuzzyhand@metroseoul.co.kr

샹송 배워 재미 UP! 글로벌 인재 꿈 U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작이 좋다' 캠페인 ⑬ 불어불문학과 <끝>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해 밝게 웃으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대 제공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신·편입생들이 입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터제도가 있다. 석·박사들로 구성된 튜터들은 학사 일정을 안내하고 전국 49개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메트로신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함께 '시작이 좋다' 캠페인을 통해 학과별 튜터를 소개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조선근(56) 튜터 사무실에선 기타 키보드 소리와 함께 로맨틱한 노랫말이 들린다. 방송대 '샹송반 스터디' 현장이다.

조 튜터는 "샹송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고 공부하면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 공부도 된다"며 노래를 통한 외국어 공부의 장점을 말했다.

최근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 또 다시 불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대 불문과도 이와 때를 같이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대 수업은 원격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불문과 튜터인 조씨는 전국 186명을 도맡아 지원한다. 조 튜터는 불문학 박사로 프랑스교육청에서 공인하는 프랑스어학능력시험 DELF-DALF 채점관이기도 하다. 담당 과목은 프랑스어입문과 프랑스어발음 연습이다.

불문학 박사 튜터가 이끄는 샹송반 스터디 늘 와글와글
"노래 부르며 공부하니 즐겁고 발음·어휘력도 쑥쑥 늘어"

튜터의 역할에 대해 조씨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학습 촉진자로서의 학습자 지원 활동과 해당 교과목에 대한 내용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며 학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튜터의 몫이다. "튜터 사이트 등의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자발적인 샹송반 스터디나 불어 성경 스터디 등을 통해 종종 만난다"고 했다.

방송대에는 1982년 학과가 설립돼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기본 교과과정 외에도 프랑스어 공인 인증 시험인 DELF 관련 과목을 포함해 총 30개의 전공 교과목이 있다.

또 프랑스어 축제, 문화생활 캠프, 프랑스 영화제를 비롯해 학술세미나, 경시대회 등 학생들의 친목과 정보 교류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이지훈(40)씨는 "아프리카에선 영어가 안 통하고 불어를 모르면 활동 자체가 힘들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투자가 많이 이뤄져 불어를 알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좋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재원도 많다"며 불어 공부를 통한 전망에 대해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한다. 기간은 17일까지다.

/김용환기자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진출 활발해져

■ 방송대 불어불문학과는

국제 공용어이자 고급문화어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프랑스어는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다.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의 기초부터 시작해 현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등 불어권 나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졸업 후에는 언론, 출판, 금융, 교육, 관광, 예술, 종교, 무역, 외교관, 통역관, 전문 기술영역(향장-미용, 제과, 제빵, 포도주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02)3668-4560
french.knou.ac.kr

서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첫삽'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대변항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끼리 충돌했다. 구명벌에 탄 중국인 선원들이 구조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대변앞바다 화물선 충돌 중국인 선원 12명 구조

10일 새벽 4시45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동쪽 12㎞ 해상에서 화물선 2척이 충돌, 1척이 침몰했다.

해경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은 파나마 선적 Harmony Reef(1959t·화물선, 12명)호로 사이프러스 선적 파나맥스블레싱호(3만8696t·벌크선, 25명)와 부딪친 후 침몰했다.

사고 후 해경은 경비함정 14척과 헬기 2대를 현장에 투입해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다.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중국인 12명은 구명벌을 타고 있었다.

바다는 초속 8~10m의 바람과 1.5m의 파고로 비교적 잔잔했다. 하지만 안개가 짙어 시계가 50m 정도였다. 구조된 선원들은 "파다맥스블레싱호가 하모니리프호의 오른쪽 앞부분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연수목원 나무교실 운영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여름방학에 맞춰 학생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연수목전시원에서 '2013년 여름방학 나무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나무교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및 대연수목전시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나무교실은 초등 저학년반(1~3학년) 3회, 초등 고학년반(4~6학년) 2회, 중등반 2회 등 총 7회에 걸쳐 반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홈페이지(green.bus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반별 25명을 선착순 접수할 계획이다. 선발자 발표는 오는 16일 오전10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51)888-7135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 회 장 남 궁 호
사 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형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81 3
부산광고문의 (051)868-2100
독 자 센 터 (02)721-9800
2002년 5월 30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66

동천로 옛 밀리오레~더샵 센트럴스타 740m 구간 조성…내년 상반기 준공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9일 서면 일대 옛 밀리오레부터 더샵 센트럴스타까지 동천로 740m구간에 만들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시범사업 선정, 설계, 관계 기관 협의 등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국비 22억원, 시비 59억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14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왕복 4차로인 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보도를 넓히고 분수시설 등 각종 조형물 등을 설치, 도심 속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선 지중화 공사도 함께 추진돼 도시 경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되면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어 서면 일대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심지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가 30% 정도 증가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로 업장 수와 매출 증대 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유럽 등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9년 대구 중앙로에 조성돼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배동욱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실제상황이 아닙니다 1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리는 상황을 가정해 119수상구조대와 해경이 피서객을 구조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안류를 관광상품화하는 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성 더 진솔하게 말한다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 13·14일 공연

여성의 성(性)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로 주목받았던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부산시민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부산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민회관은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여성의 성(性)에서 한 발짝 나아가 여성(女性)에 관한 이야기를 교감하는 '버자이너 모놀로그'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2001년 초연된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성 관객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성 관객에게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작품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작품은 2011년 공연 때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이지나 연출이 이번 공연을 맡아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는 2011년 공연을 제외하고 2001년 초연부터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연출을 맡아왔다.

이번에 다시 연출을 맡은 그녀는 에피소드 절반정도를 바꾸는 등 작품에 변화를 줘 더욱 다양한 소재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3명의 배우가 극을 이끌어나가는 드라이얼로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사회자와 두 게스트가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각기 색깔이 다른 출연진들의 실제 경험담이 녹아들어 더욱 진솔하면서도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시스

동서대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

동서대(총장 장제국)가 부산지역 사립대학 유일 5년 연속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적용한 정량 평가를 통해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 90개교,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총 150개교다. 90개교 대학 중 상위 72개교 대학은 1단계 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을 확정, 유형별 하위 각 2개교는 1단계 정량평가 결과 및 정량지표에 대한 2단계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7월 말 최종 지원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 총장은 "우리대학의 경쟁력은 모든 동서가족들이 힘을 모아 대학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은 덕분이며 정부 지원금은 대학과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실업률 2개월연속 3%대

부산지역 실업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10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울경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의 실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2.1%)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16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0.5%) 증가했고 고용률도 56.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또 2분기 부산의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16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000명(1.4%) 증가했다.

금투협이 말하는 알짜 펀드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다음달 20일부터 금융투자 회사 영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좋은 펀드·ELS 고르기'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오는 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한 심층분석과 고객관리기법 학습을 통해 좋은 펀드, ELS상품을 고르는 안목을 배양하고 금융투자 영업종사자들의 고객 투자 상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다.

이번 과정은 강사와 교육생간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영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도 펀드 및 ELS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51)867-9746

움추린 아파트 경매시장

응찰자 늘었지만 낙찰가율 하락 금정구 쌍용예가 132.4㎡ 58대1 경쟁률 최고

부산지역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지역 경매 진행 아파트는 1030가구로 이 중 434가구가 낙찰돼 42.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낙찰률 38.7%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86.1%로 지난해 상반기의 91.6%보다 낮았다.

올 상반기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5명보다 1.7명 늘었다.

지지옥션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 상반기 아파트 경매시장도 응찰자는 늘었지만 대부분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적어 낙찰가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부산지역 경매 물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금정구 구서동의 쌍용예가아파트 132.4㎡로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높은 아파트로는 해운대구 송정동의 대원하이츠아파트 84.6㎡로 감정가 대비 12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감정가가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해운대구 우동의 현대베네시티 217㎡로 감정가만 18억원에 달했으나 2명이 응찰, 감정가 대비 76%인 13억7199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술 마시고 물놀이 큰일나요" 10일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해수욕장 앞에서 심시원 인명구조 시범 훈련에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다. 통영해경은 이날 비진도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술을 마신 피서객이 물놀이하다 구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도재윤)는 9일 용상중학교 학생 40명과 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 체험 및 학과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긴급상황시 아이 돌봐드려요

시 '일시보육제도' 도입 기장 어린이집 대상 시범운영

부산시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아이를 돌봉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일시보육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시설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국·공립 정관3어린이집(원장 장은영)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기장군 거주자와 기장군 소재 직장인의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자녀로 월 40시간, 가준 시간당 이용료는 4000원이다.

이 중 20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나머지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하며 월 40시간 초과 이용 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부산시 보육지원센터(1661-9361)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되고,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시범사업 기간 내 잠처럼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텃밭 조성 희망자 신청접수

부산시는 2014년도 옥상·지상 텃밭(텃논) 조성 희망자와 아와농장(주말농장) 시민 수요 조사를 위해 31일까지 구·군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옥상·지상 텃밭(텃논) 조성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전문가의 관리지도와 사업비의 80% 정도가 지원된다.

송도 해변서 길거리 탁구대회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20, 21일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에서 '길거리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참가자 사이에 실력차가 클 경우 실력이 뛰어난 참가자가 세숫대야, 프라이팬 등을 탁구채로 사용하도록 하는 '핸디캡'룰을 적용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땅 확보 못한 채 오페라하우스 강행"

시민·사회단체 "주먹구구식 추진 건립 저지하겠다"

부산시가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 '공중누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강행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국제 설계공모전에서 당선작을 낸 노르웨이 스노헤타(Snohetta)사·일신설계 등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계약 체결 때 전체 계약금 240억여 원 중 8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크게 땅과 건립비용.

시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2만9427㎡의 땅을 확보해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산항만공사(BPA)에 해당 땅을 무상양여나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PA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오페라하우스가 '공중누각'이란 비판을 듣는 이유다.

2600억여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립 비용 조달 계획도 문제다.

부산시는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한 1000억을 뺀 1600억여 원을 국·시비로 조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미 부산시민공원에 들어서는 국립극장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쉬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기관혁신지원사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동남권역사업단은 2013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기관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R&D활성화를 위한 과제 개발과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진입을 촉진해 친화적 조직 문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재직 중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멘토링 지원, 조사연구 지원,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WISET 동남권역 사업단 홈페이지(http://dongnam.wis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510-3809

자전거 페달 밟아 영그는 '토토의 꿈'

metroMexico

멕시코 시골마을 영화상영 프로젝트…'인간 발전기'로 전력 공급

멕시코에서 자전거 발전기로 영화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화제다.

토토의 움직이는 영화관은 멕시코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디에고 토레스와 로베르토 세라노가 합작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움직이는 영화관에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자전거 '도라 헤네라도라'가 배치돼 있다.

토토는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으며 헤네라도라는 스페인어로 발전기라는 뜻이다.

영화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서 5분이나 10분씩 체력이 받쳐주는 만큼 페달을 밟고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로는 야외에 설치된 프로젝터와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된다. 도라가 생산하는 전기로 보통 40분가량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동 영화관' 아이디어는 토레스와 세라노가 참가한 멕시코 영화센터 공모전 '당신 마을의 영화관'에서 탄생했다. 토레스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실천적인 평가를 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가발전 영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영화관은 지난해 멕시코 소도시와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영화를 100회 상영했다.

토레스는 "영화관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한번 보러 가려면 다섯 시간이나 걸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가브리엘라 롬가에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라마단 금식 계율 일부러 어기는 터키 시위대 터키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라마단 첫날인 9일(현지시간)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시위를 하면 도중 야참 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수천 명의 시위대는 반정부 시위의 일환으로 라마단의 핵심 계율인 금식을 지키지 않았다. /AP 연합뉴스

"비굴한 남조선은 美 51번째 주"

북, 미국 NSA 사태 비난 동영상 인터넷 게재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유튜브에 "시사키메라 조정 비굴하고 가련한 추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재했다.

3분25초 분량의 동영상은 기밀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과 NSA 본부 건물 사진 등을 비추면서 시작된다.

동영상은 "미국의 불법 도청이 사실로 드러나 세계 각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 괴뢰들만 폭로성 기사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클분명하다며 해명 한 마디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교 역사에 다시 없을 대화록까지 공개하는 판에 (남조선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동영상은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규정한 뒤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붙어 기생하고 있다"는 자막으로 끝난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뒤늦게 NSA의 감시 프로그램 논쟁에 끼어들었다"면서 "미국이 살인과 전쟁, 도청을 한다는 험악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824.18 (-6.19)	코스닥	515.64 (-3.70)
금리	2.94 (-0.05)	환율	1135.50 (-4.00)

뉴스 & 뉴스

은행가계대출 기록적 증가

● 은행의 가계대출이 6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46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월 대비 증가폭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6년11월 6조9000억원이 늘어난 이래 가장 크게 급증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월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 역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ATM 현금서비스 이율 뜬다

● 11일부터 현금인출기(ATM)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 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와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자체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1만3000원짜리 삼계탕 속 닭값은 2400원

대표적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원가 인상분에 비해 지나치게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08~2012년 닭과 삼계탕의 가격 인상분을 조사한 결과 닭이 2034원에서 2404원으로 370원 오를 때 삼계탕은 1만593원에서 1만3091원으로 무려 2098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닭을 포함해 수삼, 찹쌀 등 식재료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가격은 같은 기간 1107원 올랐다. 이는 삼계탕 인상분의 절반 정도다.

협의회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등을 고려하면 삼계탕 가격은 현재보다 7~8%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nm@

한은 울리는 '청개구리 시장금리'

기준금리 내린지 2개월… 국고채 0.44%P 올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2개월 만에 시장금리는 거꾸로 급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2.99%를 기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지난 5월 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5%였다. 2개월 만에 금리가 0.44%포인트 뛴 것이다.

이 기간 회사채 3년물(AA-)은 2.91%에서 3.45%로 0.54%포인트, 국고채 5년물은 2.62%에서 3.29%로 0.64%포인트 각각 올랐다.

비난을 감수하고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로선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았다.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하는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도 한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국민수퍼)1년 금리는 2.75%에서 2.77%로 올랐다.

이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 4.36~6.53%에서 4.51~6.68%로 상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 측은 "외부 변수 탓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며 "한국 시장이 외국인 채권 투자를 통해 국제시장과 연계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11일 금통위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정한다.

채권전문가 99% 이상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ein1@metroseoul.co.kr

위조는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나노 코리아 2013'에서 나노브릭 업체 관계자가 구매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엠태그(M-Tag)'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늘어난 취업자…'실버'만 반짝

고용 시장에서 연령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4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이는 50대는 26만9000명, 60세 이상은 15만1000명 등 실버층 취업이 증가한 덕분이다. 반면 20대가 3만5000명 줄어 1년 2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다.

30대(-2만3000명)와 15~19세(-1만1000명)도 감소, 젊은층의 취업난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50대 연령층이 취업자 수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76.3%, 2분기 78.4%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지난해 동월의 7.7%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높아졌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183만3000명으로 22만 명(1.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4만3000명으로 14만8000명(4.6%)이나 늘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 CEO들 반소매·노재킷 '쿨한 출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경영진들이 반소매에 노재킷 차림으로 출근했다.(사진)

10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삼성사장단회의에 참가한 계열사 사장들은 대부분 시원한 반소매 차림으로 사옥에 들어섰다.

이날 반소매 와이셔츠에 노재킷 차림을 한 경영진은 삼성전자 강호문 부회장, 삼성증권 김석 사장, 삼성화재 김창수 사장, 제일모직 박종우 사장 등이었다. 삼성석유화학의 정유성 사장과 삼성정밀화학의 성인희 사장도 반소매 차림이었다.

/박상훈기자 zen@

전자책 빌려볼 곳 많네

교보문고 '샘' 이어 인터파크 'e북 대여점' 오픈

전자책(e북) 시장에 렌트 열풍이 불 조짐이다.

e북을 보려면 구매를 한 뒤 전용 단말기에 내려받아야 했지만 일정 기간 보는 조건으로 책값의 일부만 내고 대여를 하는 방식이다. 물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콘텐츠는 저절로 삭제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도서는 책을 낱권으로 빌려주는 eBook 대여점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는 교보문고가 월 정액 형식으로 대여해주는 '샘' 서비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대여 기간과 금액이다. eBook 대여점은 신간의 경우 일주일 빌리는 데 e책 정가의 20%이며, 30일은 30%, 365일은 50%다. 출간일이 18개월 경과된 구간은 각각 정가의 10%, 20%, 4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

스테디셀러 소설 '파이 이야기'와 김미화의 에세이 신간 '웃기고 자빠졌네'를 7일 대여할 경우 각각 700원, 1560원이다. 추리·무협과 같은 장르소설과 만화는 하루만 빌릴 수 있으며 가격은 각각 900원 200~500원이다.

샘은 한 달에 1만5000원을 내면 5권까지 볼 수 있고, 2만1000원을 내면 7권, 3만2000원을 내면 12권까지 볼 수 있다. 전용 단말기를 함께 사면 월 정액 1만9000원, 2만4000원, 3만4500원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단 약정 기간은 24개월이다.

책을 빨리 읽는 독자라면 낱권으로 볼 경우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등이 공동 제작한 전용 단말기 크레마 터치 역시 렌탈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렌털 서비스 역시 '콘텐츠 부족'이라는 e북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ebook 대여점만 해도 홈페이지에서 고를 수 있는 신간은 장르소설과 만화를 제외하면 3권뿐이다. 임세원 인터파크도서 eBook 사업 팀장은 "e북 대여 서비스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다. 연내에 5만 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팔찌시계가 1억5000만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이 10일 폴가리 브랜드의 하이주얼리 상품인 세르펜티를 선보였다. 팔찌 시계 등 뉴 상품으로 가격은 1억5000만원이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직장인 건보료 내년부터 월평균 1570원 인상

●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5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적용 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평균 157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윤희기자

중국에 뺏긴 '선박건조량 1위' 4년만에 탈환

● 한국이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는 올 상반기 조선 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 선박 건조량은 1973만CGT(수정환산톤수)로 지난해 상반기(2971만CGT)보다 33.6%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 중 692만CGT를 건조해 점유율 35.1%를 차지, 중국(675만CGT·점유율 34.3%)을 근소하게 제쳤다. /이국명기자

송도 주거형 오피스텔 '스마트큐브' 눈길

소형 오피스텔형 주거 시설인 송도 '스마트큐브'가 기파른 계약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큐브는 송도국제도시의 첫 지식산업센터인 '송도 스마트밸리' 내에 위치한 주거 시설이다. 지상 2~28층, 전용 34~㎡, 496실 규모로 송도 바다와 골프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인천대교의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 발코니까지 설치해 실사용 전용률이 60%를 넘으며 빌트인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편의를 더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한 개별난방 시스템으로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큐브의 가장 큰 장점은 송도의 배후 수요를 한 곳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 기업이 잇달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고 450여 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IBM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셀트리온 외의 바이오연구소 등 200여 개의 기업이 송도에 입주해 있는 상태다. 또 롯데그룹, 이랜드그룹이 복합쇼핑몰 오픈을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큐브는 바이오 개발 산업에 진출하는 삼성과 동아제약의 바이오단지가 인접해 고급 우수 인력들도 선호하는 위치다. 분양 문의 032)858-085

/김민지기자 Daily경

부동산단신

강남역 상가 '센트럴 애비뉴'

최고의 상권 강남역에 '강남역 센트럴애비뉴'가 들어선다. 이 상가는 대형 오피스텔(728실) 건물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다. 상가 연면적 약 1만3000㎡에 점포 수만 110개에 달한다.

강남역 일대의 건물 중 상업시설 점포 수만으로는 단연 최대 규모다. 주변 강남역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고정 수요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형 상가'로 평가받는다. 센트럴애비뉴 상가는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강남역 1번 출구와의 거리가 불과 34m에 불과하다. 분양문의 02)583-3630

/김민지기자

삼송 우림필유 26% 인하

고양 삼송지구의 우림필유 브로힐'이 9월 입주를 앞두고 잔여 가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우림건설은 10일 고양삼송 우림필유 아파트가 적극적인 미분양 판매 마케팅으로 최근 20여 일 새 100여 가구 가까이 팔렸다고 밝혔다.

우림건설이 내놓은 가장 큰 혜택은 분양가 인하다. 우림건설은 최근 고양삼송 우림필유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보다 26% 정도 내렸다.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져 전용면적 99~114㎡를 3억2000만~4억1000만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 문의 1577-1393

/김민지기자

대출 쉬운 '아이스탠다드론'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의 '아이스탠다드론'은 바쁜 직장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 상품으로 365일 24시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1566-7799

구석구석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날짜 7월 26일~8월 4일
장소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및 영일대(북부)해수욕장 일원

올해 축제는 '한여름 밤의 불빛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길거리공연 및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참여하여 체험하며 즐기는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경연 방식의 '국제불꽃경연대회'를 강화하고 포스코 횡경타워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타워불꽃쇼 연출로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11회 태안연꽃축제
날짜 7월 12일~8월 25일
장소 충남 태안군 청산수목원

축제장인 청산수목원은 9만9200㎡ 부지에 백련, 홍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200여 종의 수련이 자라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그린 '랑그루아 다리'를 재현해 만든 '고흐 브리지'는 축제장의 명물이기도 하다. 음식 코너에서는 연꽃, 연잎 등을 이용한 4종의 차와 연아이스크림, 연잎칼국수, 연콩국수, 연부침, 연밥 등을 맛볼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으로 책정됐다.

◆제6회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 축제
날짜 7월 20~21일
장소 충북 옥천군 안내면 종합축제장 및 생태공원 일원

산지가 많은 탓에 밭농사를 많이 짓는 안내면에선 따년 7월에 주작물인 감자와 옥수수를 주제로 축제를 연다. 옥수수 빨리 먹기대회, 포근포근 삶은 감자 빚보기, 옥수수 따기 체험, 물고기 잡기 대회, 노래자랑, 우수 농산물 전시, 특산물장터 등 1박2일 동안의 흥겨운 농산물 축제는 행사장 인근에 옥천의 명소가 있어 하루 코스로 떠나는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스키장의 여름밤 '시네마천국'

제17회 태백쿨시네마축제
27일 오투리조트서 개막
'7번방의 선물' 등 최신작
28m 초대형 스크린 따워

한여름 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고원 잔디 위에서 매트를 깔고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며 대형 화면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에서 '제17회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이 열린다.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은 한여름 밤,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특히 담요가 필요할 정도로 서늘하고 고지대라 성가신 모기도 없다.

야외에서 영화제라 해서 화면과 사운드가 별로일 거란 생각은 오산이다. 이번 축제에서 사용하는 스크린은 가로 28.2m, 세로 12.7m 크기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스크린보다 2배 이상 크다. 스크린 크기만으로도 63빌딩 아이맥스, CGV 영등포 스타리움에 이어 세 번째다. 여기에 국내 최고 성능의 영사기와 최신 디지털 프로세서(돌비 CP-650) 5.1채널 플레어 시스템이다.

예전 영화만 상영할 것이란 생각도 버려야 한다. 개막일인 27일에는 화제작 '7번방의 선물', 28일은 톰 크루즈와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오블리비언', 29일은 가슴 따뜻한 영화인 '송포유', 30일은 최강의 봉태규 주연의 '미나문방구', 31일은 '레미제라블' 등 다양한 장르의 최신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도 열려 개막일 박상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록밴드, 어쿠스틱밴드, 힙합, 비보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접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3일 동안 매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벌어지는 물놀이 난장은 보너스다.

/정리=신화준 기자 shin8484@metroseoul.co.kr

신나는 모험 가득한 '태백의 인디아나존스'

놀이공원같은 '365세이프타운'서 안전체험 짜릿
검룡소·황지연못·대덕산··천혜의 피서지로 각광

놓치면 후회할 태백 명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색 피서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강원도 태백이 제격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7월 이달의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태백 '365세이프타운'은 그 어디서도 만나기 어려운 국내 최초, 유일의 안전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놀이동산 온듯 신나는 체험이 가능한 세 테마 지구는 곤돌라(케이블카)로 서로 연결돼 태백의 절경을 감상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

◆장성지구 안전체험관

장성지구 안전체험관에서는 산불·설해·지진·풍수해·대테러 등 5개 체험관에서 3D 영상과 라이더형 시뮬레이터를 타고 4D 체험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설은 눈속임이 아니어서 더욱 실감난다. 산불체험관의 경우 롤기 시뮬레이터를 타고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산불 진화 상황을 긴장감 있게 느낄 수 있다.

놀이기구보다 더 신나는 대테러체험관도 놓칠 수 없다. 360도 회전하는 디크라이더를 타고 입체영상과 함께 실감나는 특수효과가 더해져 마치 PC게임 속 주인공이 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각 체험에는 5~15분이 소요된다.

365세이프타운 내 고무보트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수해체험 훈련을 하거나 트리트렉 챌린지에 도전해 볼 수 있다. 모든 체험은 안전장치가 구비된 상황에서 진행된다.

◆중앙지구 챌린지월드

일본 디테이미 케이블카가 부럽지 않은 곤돌라를 타고 편도 1.7㎞를 올라가면 챌린지월드란 말 그대로 모험이 펼쳐진다. 트리트렉 챌린지타워에서는 유격 훈련을 연상시키는 22종의 코스에 도전할 수 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체험과 로프에 매달려 조각공원까지 하강하는 짚라인은 남성들도 도전을 망설이는 모험이다.

향후 챌린지월드에는 산 정상에서 종탑까지 질주하는 사계절 루지, 일명 인코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철암 지구 소방학교는 소화기 체험과 심폐소생술·화재 속 미로 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천혜의 피서지 태백

태백은 '탄광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관광지로서는 조명을 덜 받은 편이다. 그러나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엔 더위와 모기가 없어 하늘이 내린 피서지이자 명소가 가득하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황지연못은 꼭 둘러봐야 할 명소다. 특히 생태보존지역인 검룡소 가는 길은 요즘 태덕산 정상에 야생화가 만개해서 등산을 겸한다면 절경을 만날 수 있다.

휴가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국내 유일의 국제자동차연맹 공인을 받은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ATV와 카트를 즐기는 것도 좋다. 먹거리로는 저렴하고 연탄불에 구워 더욱 맛있는 태백한우구이와 국물이 넉넉한 태백닭갈비를 추천한다.

숨겨진 맛집으로는 통리역 인근에 위치한 연화반점(033-552-8369)이 있다. 조미료를 넣지 않은 짜장면과 감자전분만을 사용한 탕수육은 중국요리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다. /사.최윤기자

'도둑·애견·먼지' 빈집 걱정 그만

휴가철 집지킴이 기기들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 덕에 휴가를 떠나도 빈집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둑 침입, 애완견 사료 주기, 먼지 쌓인 거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IT 기기들이 있으니 말이다.

◆ 집 안의 블랙박스 =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언제든 집 안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지난달 에스원이 선보인 공동주택 전용 스마트 홈시큐리티 서비스 '세콤 홈블랙박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를 위한 가정용 무인 보안 시스템이다. 집 안에 블랙박스 기기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 앱으로 집 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동작이나 소리가 감지될 경우 스마트폰·e메일·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며, 집 안을 녹화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유튜브의 개인 계정에 자동 저장돼 PC·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KT의 집전화 서비스인 '올레 스마트홈 폰 HD'(위 사진)도 지킴이 역할을 한다. 집을 나서기 전 홈 지킴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션 센서가 이상 움직임을 감지해 집 내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동 촬영해 미리 등록된 고객의 휴대전화로 발송해준다.

◆애견 정시 배급 = 애완동물을 전용 호텔에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 가장 중요한 식사 문제만큼은 자동급식기로 해결할 수 있다. '펫와치 타이머 V 자동급식기'(아래)는 하루 5회까지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자동으로 급식한다. 예약 시간대별로 사료의 양도 조절할 수 있다. 또 주인의 음성을 녹음시켜 친근한 소리로 급식을 유도하는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 빈집에 혼자 남은 애완동물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완화해준다.

◆ 빈 집 청소 우렁각시 = 휴가 기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청소하고, 충전기로 돌아와 자동으로 충전까지 하는 모뉴엘의 로봇청소기 클린클린(MR6500). 높이 82mm의 슬림한 디자인과 함께 어두운 부분을 감지해 집중 청소해주는 세도 모드를 탑재해 침대나 소파 밑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고성능 모터를 장착해 기존 로봇청소기보다 강력한 흡입 성능을 자랑하며, 설정된 시간마다 자동으로 청소하고 충전하는 예약 청소 기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빈집이 깔끔하다.

/백상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꼼꼼 IT리뷰 · LG전자 탭북

키보드·거치대 품은 '짬짜면 PC'

짜장면과 짬뽕 메뉴 고민을 위해 짬짜면이 탄생했듯이 PC시장에서도 퓨전이 대세다.

LG전자의 '탭북'은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장점을 결합했다.

11.6인치, 1.25㎏으로 태블릿 PC보다 액정이 크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지만 노트북 못지않은 사이와 가벼움을 뽐낸다. 어댑터 무게는 190g으로 휴대하기 좋다.

탭북은 평소에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 태블릿 PC는 장시간 사용 시 화면이 쉽게 뜨거워지는 데다 타자감도 일반 키보드보다 떨어진다. 이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다.

탭북은 이러한 고민을 '오토 슬라이딩' 버튼처럼 시원히 해결해준다. 문서 작성 등의 고급 작업에 필요할 경우 탭북 측면의 이 버튼을 누르면 액정 밑에서 키보드가 쑥 나온다. 키보드 반응 속도와 입력 느낌도 우수하다. 키보드가 내장됐지만 탭북 두께는 19.4㎜로 얇다. 무엇보다 거치대 없이 모니터가 세워져 별도의 액세서리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각종 포트 및 마이크로SD카드 슬롯으로 주변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 다만 인터넷 연결 포트는 없어 무선 인터넷만 접속해야 한다.

배터리는 최대 6시간30분 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안정적 사용을 위해 충전 잭 연결을 권한다.

탭북은 3세대 프로세서 코어 i5와 i3를 탑재했으며 가격은 모델 7160-GH30K 기준 130만원 내외.

/황윤희기자 [illegible]

더 화려해진 '파워레인저'·재미 빵빵한 '오즈의 마법사'…

얘들아 '뮤지컬 뷔페' 즐기러 가자

여름방학에 볼만한 작품 뭐가 있나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어린이 관객을 겨냥한 뮤지컬이 쏟아지고 있다. 인기 만화 캐릭터부터 명작 동화, 인형 발레까지 '메뉴'도 풍성하다.

매년 어린이 관객을 찾았던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올해엔 '슈퍼액션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vs 고버스터즈'라는 타이틀로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파워레인저인 고버스터즈를 TV 방영과 동시에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약 3200석의 올림픽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거대 로봇과 대형 LED 모니터를 이용한 특수 효과는 물론, 무대를 뒤덮는 화염과 객석을 가로지르는 플라잉 액션 등 일반 극장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선보인다. 문의 (02)2261-1393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다음달 5~11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45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이 만든 이 뮤지컬은 바람에 날아가는 도로시의 집과 눈앞에서 사라지는 서쪽마녀, 3m가 넘는 오즈대왕 등 다양한 특수 효과로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상상력과 재미를 느끼게 한다. 문의 1577-7766

지난해 겨울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인형발레 '백조의 호수'도 새롭게 단장했다.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뮤지컬적인 요소를 더하고 스토리와 안무를 강화했다. 어린이들이 백조와 토끼 등으로 변신한 전문 무용수들의 군무를 더욱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의 1577-3363

/박진현기자 jin1427@metroseoul.co.kr

word8686@naver.com

동성커플이 정상인 세상 속으로

고정관념 깨트린 '헤이, 지나!' 공연

뮤지컬 '헤이, 지나!'가 포렉스아트홀 현대아트홀에서 공연 중이다.

2003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뮤지컬은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같은 해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다.

극의 배경이 되는 하트빌은 현실 세상과 달라 남남·여여 커플이 정상인 도시다. 또 여성은 로데오를 즐기고, 남성은 뜨개질을 하는 등 남성성과 여성성도 뒤바뀐 곳이다.

어설픈 모든 것이 거꾸로인 생소한 설정이 관객들의 고정관념을 깨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모차르트!'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지난해 뮤지컬 '왕세자실종사건'으로 연출가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은 이란영 연출과 뮤지컬 '그날들', '리걸리 블론드', '라카지'에 참여한 장소영 음악감독이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했다.

강현호·김지휘·이창희·김용남·서경수·박정훈·최수진·조윤영·박혜나·이정미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9월 15일까지. 문의 070)7519-9734

/박진현기자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대회 13일부터 열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R16 코리아 2013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대회가 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다. 3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20개국에서 펼쳐진 예선을 걸쳐 선별된 비보이 댄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 최정상의 댄서가 되기 위한 혈전 경합을 벌인다.

tvN '코리아 갓 탤런트 2'에서 우승한 본주 웨인 브라더스와 준우승한 칸연분의 게스트 쇼뿐 아니라 이번 대회의 명예홍보대사인 박재범, 세계를 놀라게 한 여섯살 춤꾼 테라와 언니 에디의 힙합 콘서트도 펼쳐진다.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노년에 꼭 필요한 세가지 보장을 한번에!

명품부모님보험

☎ 1644-9896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중년에 걱정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 1577-6429

www.aig.co.kr

AIG 더 좋은 내일

metro entertainment E

롤모델 없다…나만의 색 만들뿐

17일 개봉될 '미스터 고'에서 서커스단의 소녀 단장 웨이웨이를 연기한 서교(15)는 또래들에 비해 무척 조숙하고 차분하면서도 당찼다. 어떤 질문에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정확히 답하는 모습에서 10대 소녀답지 않은 카리스마가 넘쳐흘렀다. 극중 야구 하는 고릴라 링링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실제 고릴라였어도 서교의 말만큼은 잘 들었을 듯싶다.

'미스터 고' 중국 아역배우 **서교**

감정 중시하는 3D 영화 맘에 쏙

'너붓작인 CJ7', '장강7호'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가상의 캐릭터와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연기는 액션 이상으로 리액션이 중요하기에 실재가 없는 상대역과 공연한다는 것은 베테랑 배우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강 7호' 때의 경험과 링링의 대역을 맡아준 분이 있어 수월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김용화 감독님만의 특별한 연기 지도가 큰 힘이 됐죠. 김 감독님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김 감독은 중국에서만 1억 건의 톨벗 디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미녀는 괴로워'로 동례 처음 이름을 알게 됐다. 서교도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미녀는 ' 을 말할 정도다.

순제작비 225억원 가운데 50억여 원을 투자한 한지 투자·배급사 화이브라더스 관계자의 소개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 감독을 만나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기존의 3D 영화와 달리 감정을 중시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그 감정은 중국과 한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정서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무척 보편적인 것"이라고 조리 있게 설명했다.

크랭크인 석달전부터 한글 익혀

크랭크인 석 달 전부터 자근자근 한글을 익혔고 재빡 휘두르는 법과 적금링을 배웠지만, 열여섯 살 소녀에게 낯선 타국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때마다 에이전트 성충수 역의 성동일이 곁에 있었다. "성동일 아저씨는 유머 감각을 타고난 것 같아요. 주위에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아침마다 촬영장에 오면 전날 밤 있었던 술자리를 얘기해주시며 '네가 어려서 (술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다'고 한탄하셨어요."

롤모델로 삼은 선배 연기자가 있는지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존경하는 배우들은 많지만, 롤모델로 삼은 분은 없다"며 "나만의 색깔이 있는 배우로 크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 별자리가 사자자리다. 중국에서 사자자리는 욕심이 많다고 한다. 내가 그런 것 같다"면서 배시시 웃었다.

난 욕심많고 당찬 열여섯살 소녀
김용화 감독님의 연기지도 큰 힘
성동일 아저씨는 '술고래'더군요

내달 시카고 유학… 학업에 집중

다음달 일이면 부모와 떨어져 시카고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유학 기간 중에는 연기보다 학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화 출연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등한시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다. 물론 방학을 이용해 틈틈이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공부를 최우선시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서교는 "공부를 썩 잘하거나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수학이 제일 어렵고, 영어와 역사는 잘한다"며 수줍은 목소리로 말한 뒤 이내 말투를 바꿔 "얼굴만 예쁘고 배운 게 없는 배우는 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중국 여배우의 차세대 간판으로 누가 나설지 명확해 보인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디자인/늘지영

star bag

'뜨거운 안녕' 일본 무대 인사

FT아일랜드 이홍기를 비롯한 영화 '뜨거운 안녕'의 주요 출연진이 일본 홍보를 위해 현지 관객들과 만난다.

이홍기와 마동석·임원희·백진희·전민서 등은 다음달 26일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열릴 무대인사에 나선다. 지난달 초 일본에서 '피닉스 - 약속의 노래'란 제목으로 개봉된 이 영화는 시한부 환자들의 시고등치 아이돌 가수의 밴드 결성기를 그렸다.

새 시트콤 '고구마저림…' 출연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아역 스타 여진구가 김병욱 PD의 새 시트콤인 tvN '고구미차밥 생긴 감자별 2013QR3 (가제)'에 출연한다.

여진구는 다음달부터 방송될 이 시트콤에서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홍계성을 연기한다. 제작진은 10일 "처음 경험하는 시트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씨제스·로엔 XIA 2집 홍보 합의

JYJ 준수가 솔로 2집 홍보와 관련해 불편한 관계였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와 유통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다시 손을 잡았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10일 "어제 저녁 상대와 만나 당초 예정했던 홍보 마케팅 일정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씨제스 측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홍보 마케팅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했었다.

4ℓ 물·30분 걷기로 36kg 감량

MBC '위대한 탄생 2' 우승자 구자명이 자신의 SNS를 통해 36kg 감량 비법을 공개했다.

구자명은 "일단 식후 무조건 30분씩 걸었다. 식이요법도 하고 하루에 물을 4ℓ 이상 마셨다.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가장 기본인 잘 먹고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고 밝혔다.

"힐링 내조… 또 한번의 도약" 새색시 한혜진이 10일 경기 남양주의 한 촬영장에서 열린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00회 특집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다. 남편 기성용의 SNS 파문으로 이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나와 신랑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제도약할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도와주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100회 특집은 15일 방송되며, 한혜진은 24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하차한다.

▶ 기성용 선수, 보면 볼수록 결혼 참 잘 하셨네요.

/사진=한기자

제대한 비 일단 '잠행모드'

외부일정 안 정한 채 휴식
해외 먼저 컴백 가능성도
전역현장 팬 800여명 몰려

가수 비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21개월 만에 사회로 돌아왔지만 '잠행 모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전역한 비는 방송·공연 등 어떤 외부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휴식에 들어갔다. 올해 초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비는 전역 직전 터진 연예병사 복무 실태 논란으로 인해 복귀 시기를 더욱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방부가 비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연예병사들의 군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비롯한 연예병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같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여론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제대는 했지만 최소한 연예병사와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어떤 활동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도 "당장 활동에 나서기 보다 초심을 다지며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며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컴백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새 동지 이적 사실을 밝힌 직후 해외 유명 레이블과 계약 추진 소식이 들리는 등 가수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살펴야 하는 국내 복귀에 앞서 해외 음반이나 공연으로 먼저 컴백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한편 이날 전역 현장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800여 명의 팬들이 까 증나와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상당수가 다양한 국가의 해외 팬들이었고, 많은 일본 팬이 전날 밤부터 부대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비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경기도 고양시 벽제 어머니 산소로 향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군복무를 마친 가수 비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에서 전역 직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위) 사진의 비의 제대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과 전날부터 찾은 800여명의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전지현 14년만에 안방 복귀?

톱스타 전지현이 1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올지에 팬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현은 12월 방영 예정인 SBS '별에서 온 남자'의 여주인공을 제의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하면 1999년 '해피투게더' 이후 14년 만의 드라마 복귀다.

특히 영화 '도둑들'에서 호흡을 맞춘 김수현도 남자 주인공 물망에 올라, 이들의 재회 여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러나 전지현의 소속사 측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제안 받은 여러 작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드라마는 400년 전 외계에서 온 남자가 뛰어난 외모와 놀라운 능력으로 현세까지 살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판타지물이다.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가 집필하고, SBS '뿌리깊은 나무'의 장태유 PD가 연출을 맡는다.

/박준한기자 jun0427@

김진호 앨범 '한강애' 발표

SG워너비 출신 김진호가 18일 한강을 주제로 한 여름 스페셜 앨범 '한강애'를 발표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치킨'을 포함해 '한강애' '엄숨돌' '궁금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등 5곡을 담았다. 지난 2월 데뷔 9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던 김진호는 새 음반으로 자신의 음악 색깔을 더욱 분명히 강조할 예정이다.

김진호는 소속사를 통해 "이제 SG워너비는 잊었다. SG워너비는 나를 알리고 내 음악의 밑바탕으로 큰 힘이 되게 김진호라는 이름을 각인시켜준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이제는 SG워너비의 틀을 벗어나 솔로 가수 김진호로서 내가 느낀 세상과 삶에 대해 소소히 음악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호는 앨범 발매와 함께 작은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노래를 들려주는 '살롱 콘서트'를 매달 2회씩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배철수 팝스타 스팅 만난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열리는 스위스서 생방송

배철수(사진)가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DJ 배철수는 15~19일 '2013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팝스타 스팅을 비롯해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재즈 보컬리스트 조지 벤슨, 다이애나 크롤 등을 현지 스튜디오로 초대하고 공연 실황도 방송한다.

또 재즈 기타의 거장 리 릿나워, 퀸의 제5의 멤버로 불리는 매니저 짐 비치, 스웨덴 록밴드 하이브스, 국내 재즈 뮤지션 나윤선도 출연한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매년 7월 스위스 레만 호숫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재즈 축제로, 국내 방송사의 현지 생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순호기자

지상 최대 쇼 버라이어티의 귀환!
42ND STREET
MUSICAL
42ND STREET
브로드웨이 42번가
2013.7.9~7.28
성남아트센터
프렌즈 패키지
40% 할인!
박상원 남경주 박해미 홍지민 정단영 전예지 전재홍 이종주 외

나트랑, 보석보다 빛나는 이름

하나투어 5·6일 상품 다양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한 꼭 가봐야 할 휴양지'이자 세계 3대 휴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 나트랑은 길게 뻗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동부지방에 위치한 나트랑은 습도가 낮고 쾌적한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돼 가격과 함께 떠나는 휴양지로 제격이다. 나트랑의 롱마르트르로 불리는 롱손사는 1889년에 지어진 불교 사찰로, 나트랑의 해안선과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변 섬으로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호핑투어는 천혜의 수중 환경을 감상할 수 있어 다이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나투어의 아시아나항공·베트남항공 특별기를 이용한 나트랑 5일, 6일 상품을 이용하면 리조트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이아몬드베이 리조트 상품의 가격은 99만9000원(유류할증료 별도)부터이며 동반 아동을 30만원 할인해준다.

119만9000원부터 시작하는 쉐라톤호텔 상품은 사전 예약 시 최대 15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빈펄 리조트&스파, 에바손 아나만다리조트 등 다양한 리조트와 호텔을 선택할 수 있다. /권보람기자

제주신라로 떠나는 '럭셔리휴가'

7월16일 단 하루의 선물! '문라이트 서머 S 패키지' 더 파크뷰 디너뷔페 무료

제주신라호텔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커플 고객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오는 16일 단 하루, '문라이트 서머 S 패키지'(50만~56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1박을 이용하는 커플 고객에게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제주 자연산 생선회와 해산물 요리·그릴에 직접 구운 바비큐·이봉 특별 보양식 '한라산 불로탕'·딤섬·수제 베이커리 등 각석에서 조리한 자연주의 요리를 제공하는 '더 파크뷰 디너 뷔페' 2인 이용권(18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특전은 선착순 마감된다.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주신라호텔의 '문라이트 서머 S 패키지'에는 본관 신전망 수페리어 객실 1박을 비롯해 2인 조식, 익스프레스 체크인 등 다양한 특전이 포함된다.

패키지 이용객은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을 투숙 중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입장할 수 있다. 야외수영장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문라이트 캐리비안 파티'가 열려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이는 세계 정상급 캐리비안 아티스트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해수욕을, 밤에는 은은한 별빛을 벗 삼아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패키지 투숙객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나이트 비치 시네마의 영화는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상영된다.

5층에 위치한 라운지 S에서는 자정까지 음료와 디저트를 무제한 즐길 수 있다. 최대 6시간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S키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특별한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숲비 정원에서 색소폰 라이브 연주로 영화 음악을 감상하며 세계 와인을 즐기는 시네마 와인파티 2인 입장권, 레저 전문 직원 GAO와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제주의 여름밤을 만나는 문라이트 트레킹 2인 무료, 객실 인터넷 무료 이용 등이 포함된다.

문라이트 서머 S 패키지 외에 7월 16일 '문라이트 서머 패키지' 1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더 파크뷰 디너 뷔페 2인 이용 혜택이 선물로 주어진다. 문의 1588-1142 /권보람기자

화성·한옥마을…예스런 달빛 투어

수원·전주 두 명소 손짓

잠 못 드는 여름밤을 달래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원 화성에서는 넉넉한 달빛 아래 화성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 투어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매일 오후 8시에 시작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화성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코스는 화성행궁 일대를 답사하며 오후 9시까지 관람하는 달빛코스와 행궁 매표소에서 출발해 팔달산 서장대까지 이동하는 별빛코스 등 2가지로 준비됐다.

참가 비용은 무료(화성행궁 관람료 유료)이며 단체 20명 이상이 달빛코스를 이용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www.swcf.co.kr)에서 예약하면 보다 편리한 관람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 한옥마을 숙박객 등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옥마을 야간 투어 프로그램 '전주한옥마을 여름밤 야행산책'을 실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전동성당, 태조로를 지나 오목대 산책로에서 한옥마을의 야경을 감상하는 코스로 매일 오후 6시50분 경기전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 1시간가량 진행된다. 투어 시작 전 경기전안내소 앞을 찾아가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 문의 063)287-1330 /권보람기자

르네상스호텔 키즈생일파티 '아이 신나!'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키즈 생일 파티 패키지'를 선보였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패키지는 생일 케이크와 쿨버거, 김밥 등으로 구성된 키즈 뷔페와 페이스페인팅, 마술쇼, 버블쇼, 에어 바운스, 피냐타 터뜨리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파티 타임으로 구성된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파티플래너가 아이들을 돌봐준다.

키즈 메뉴는 2종류로 1인당 2만7000원 또는 3만2000원. 파티 액티비티는 3종류로 각 75만원·125만원·190만원에 준비됐다. 어른을 위한 메뉴는 3만9000원, 4만7000원에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금 및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최소 이용 인원은 20명 이상이며 키즈 메뉴와 파티 액티비티를 각각 선택해야 한다.

문의 02)2222-8600

'하늘의 조명' 받아 더 눈부신 프라하 카렐교

프라하 은천 중앙도시 카를로바 바리와 쿠트나 호라 세인트 바바라 성당(아래)

권보람기자의 명작여행

/kwon@metroseoul.co.kr

아르누보 시대 대표하는 알폰스 무하의 나라 체코

아르누보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의 국보급 작가 알폰스 마리아 무하의 작품이 11일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알폰스 무하-아르누보와 유토피아'전은 무하의 회화, 판화·드로잉 등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아르누보 작품의 정수를 선보이게 된다.

무하의 작품이 탄생한 체코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중세 동유럽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그림처럼 완벽한 바로크·고딕 건축 양식은 나라 전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국가지만 안토닌 드보르자크, 프란츠 카프카 등 세계를 사로잡은 예술가들의 모국다운 아름다움과 섬세함이 거리 곳곳에 스며있다.

무하의 대표작인 '황도12궁'의 오묘한 붉은빛은 체코의 노을을 닮았다. 유럽의 3대 야경 중 하나로 꼽히는 프라하의 야경을 감상하려면 해가 지는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카렐교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교로 꼽히는 이곳은 역시 노점 관광객으로 늘 붐빈다.

국내 전시회에 만족할 수 없는 무하 마니아들이라면 바츨라프 광장 옆 판스키 7에 위치한 무하 미술관에 들르는 것을 추천한다. 박물관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면 전문 가이드의 투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하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건축 과정에 참여한 아르누보 양식의 프라하 시민회관은 체코의 문화를 한 발 가까이서 만나기 좋은 장소다.

매 시즌 새로운 작품이 공연·전시되며 레스토랑 시설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나의 조국'을 지은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이름을 딴 홀이 있는데, 세계적인 음악 축제 '프라하의 봄'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화이트 패션, 화려한 컴백

기라로쉬

질샌더·스텔라 매카트니 여름 해외 컬렉션 물들여
상·하의 흰색에 컬러슈즈 소재 믹스매치 코디로 '멋'

지난해 비비드 컬러 화려한 패턴의 유행으로 자취를 감췄던 화이트가 올 여름 패션의 중심에 섰다. 이번 시즌 화이트 컬러는 모던하고 시크한 룩을 대표하며 "또 다른 블랙"이라 불리는 중이다. 질샌더·스텔라 매카트니·기라로쉬 등 해외 패션 브랜드들도 2013년 봄·여름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화이트 룩을 선보여 흰색의 인기에 힘을 실어줬다.

기본 화이트 셔츠의 대명사인 질 샌더는 여름 컬렉션에서 블랙 앤드 화이트 콘셉트로 모던함을 강조했다. 가죽과 퍼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스텔라 매카트니는 자연스러운 여성미를 강조한 흰색 의상을 대거 내놨다. 기라로쉬는 역시 화이트를 메인으로 절제된 디테일 속에 섹시함이 돋보이는 피카부(peek a boo) 의외의 곳에 트임이나 노출로 속이 살짝 보이는 변형 '픽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올 화이트룩은 깨끗하지만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다. 기라로쉬 관계자는 "상·하의를 모두 흰색으로 코디했다면 볼드한 액세서리나 컬러 슈즈 같은 소품을 걸들이면 한결 세련된 화이트 패션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소재가 다른 아이템을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글게 짠 니트 셔츠에 하늘하늘한 시폰 스커트를 입거나 빳빳한 면 소재 반바지와 속이 비치는 시폰 블라우스를 코디하는 식이다. 정반대의 느낌이 의외로 잘 어우러져 매일 새 옷을 입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새하얀 가방은 화이트 패션에 마침표를 찍어준다. 브라스파티 관계자는 "흰색은 더워 보이기 쉬운 가죽 가방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며 "화이트 바탕에 블랙 네온 등으로 컬러 블럭된 아이템도 화이트룩에 멋을 더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뉴스&뉴스

현대백화점도 아웃렛 진출

● 현대백화점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1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10일 현대백화점은 김포시청에서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과 유영록 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7월 중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15년엔 송도에도 아울렛을 열 예정이다. /안용수기자

하이트진로 ERP책자 발간

● 하이트진로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과정이 담긴 책 '소맥 황금 비율을 찾다'가 10일 발간됐다. 하이트진로 업무혁신실장 김광태 전무와 최일용 과장이 지난 2010년부터 맥주와 소주 양 부문을 아우르는 ERP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담았다. 이달 중순에는 주류와 음주 상식을 총망라한 '알코올 딕셔너리'(가제)도 출간할 예정이다. /김보형기자

일동후디스 세슘재판 승소

● 일동후디스가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0일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보형기자

'하지원 원피스' 입으면 바캉스 시즌의 멋쟁이

여성 캐주얼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가 바캉스를 위한 원피스 2종을 선보였다.

과감한 패턴이 특징인 맥시 원피스와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시폰 원피스다.

맥시 원피스(6만4000원)는 옐로·오렌지·블랙 등의 컬러 믹지와 반복되는 사선 패턴으로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긴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체형의 결점을 커버해주고 리조트룩으로 손색이 없다.

시폰 원피스(10만7000원)는 검정색 바탕에 자연스러운 오렌지 톤의 프린트를 더해 멋스럽다. 플리츠 시폰 소재로 땀이 빠르게 증발돼 시원하다. 포함돼 있는 벨트를 착용하면 오피스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www.crocodilelady.com /박지원기자

잇 래디언트 CC크림 재구매율 1위 비결 수분감과 화이트닝

'CC(씨씨)크림'의 인기 비결은 '남다른 화사함과 촉촉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가 '잇 래디언트 CC크림' 재구매율 1위 달성을 기념해 최근 8600여 명을 대상으로 CC크림의 장점을 묻는 물음에 '발랐을 때 느껴지는 촉촉함과 화사함이 다른 CC크림과는 비교가 안 된다'(46.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자연스러운 톤 보정'(27.5%), '가벼운 밀착력'(19.1%), '속부터 차오르는 브라이트닝 케어'(6.7%) 순으로 만족해했다.

바닐라코 관계자는 "바닐라코 잇 래디언트 CC크림은 국내 유일의 수분 브라이트닝 기능으로 CC크림 시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탁월한 수분감과 화이트닝 효과가 인기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www.banilaco.com /박지원기자

'아이스티 믹스' 있으면 캠퍼 입맛 올킬

샐러드 칵테일 만들때도 휴대편한 립톤제품 유용

캠핑을 떠나기 전 텐트와 침낭 등 흔히 떠올리기 쉬운 캠핑 아이템 외에도 빠뜨려선 안 될 준비물이 있다.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간식거리다. 쓰레기는 줄이고 먹는 방법은 더욱 간편해진 캠핑 인기 간식 아이템이 다양하다.

120년 전통의 차 전문 브랜드 립톤(LIPTON)의 '아이스티 믹스'는 깔끔한 홍차와 상큼한 과일 맛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낱개 분말 스틱 형태로 돼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물에 타면 손쉽게 아이스티를 즐길 수 있다.

아이스티 분말을 활용하면 야외에서도 다양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 과일과 요구르트, 립톤 아이스티 분말을 함께 섞으면 달달한 홍차샐러드가 되고 맥주나 와인에 섞으면 칵테일 음료가 된다. 아이스티 믹스를 활용해 만드는 시원한 여름 음료 레시피는 립톤 공식 블로그 '립톤티가 들려주는 립톤 이야기'(liptonstory.blog.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풀무원 더 스푼 브런치 감자는 컵 용기에 물만 부으면 으깬 감자가 완성되는 제품이다.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영양과 포만감을 동시에 잡아 식사 대용으로 좋다.

청정원 소프트 슈는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는 냉동 간식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두었다가 상온에서 10~15분 정도 해동하면 부드럽고 달콤한 슈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안용수기자

냉면사리 무한리필… 갈비세트 1000원

강강술래 '여름냉면 대축제' 15일 고양늘봄농원점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여름 냉면 대축제'를 벌인다.

15일 오전 11시부터 고양 늘봄농원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대학생과 관광객을 초청해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2.5m 초대형 냉면을 비롯해 30여 가지 재료로 만든 이색 냉면을 선보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한우떡갈비, 한우사골곰탕, 쇠고기육포를 반값에 판매하며 갈비세트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천원 경매' 이벤트가 펼쳐진다. 갈비세트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과 원숭 위에서 냉면 빨리 먹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까지 아래 인쇄된 무료 교환권을 갖고 행사장에 오면 쇠고기육포 1봉(6000원)과 냉면쿠폰 1매를 무료로 증정한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8월 말까지 신메뉴(황태물냉면·황태비빔냉면)를 주문하면 1000원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와 함께 기존 물냉면과 비빔냉면에 사리를 무한 리필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이용하면 바캉스세트(한우불고기 900g+강강양념 LA갈비+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초복을 맞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5팩) 15인분이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 10인분이 2만2000원 등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안용수기자

기성용 징계 대신 경고

"사적공간…옳은 결정" "나쁜 선례" 의견 대립

대한축구협회가 'SNS 파문'을 일으킨 기성용(24·스완지시티·사진)을 상대로 징계 대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협회는 10일 "부회장단 회의에서 기성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따로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무 협회 부회장은 "기성용은 아직 어리다. 한국 축구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의 기를 중징계로 꺾을 순 없다"며 "국가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협회의 책임이므로, 협회 차원에서 사과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SNS에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조롱하고 비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협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 옳은 결정"이란 의견과 "국가대표의 의무를 위반한 선수에게 면죄부를 줬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

이병규 10연타석 안타

NC 상대 잠실 홈경기서 국내 신기록…LG 이틀 연속 역전승

LG 트윈스의 주장 이병규가 10연타석 안타로 최다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

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병규는 2회 상대 선발 투수 손민한을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렸다. 이로써 이병규는 지난 3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10연타석 안타 성공의 새 기록을 썼다.

이병규의 이번 기록은 미국프로야구와 일본프로야구의 최다 연속 안타 기록에 각각 두 타석과 한 타석이 모자란다. 앞서 국내 최고기록은 SK 김민재(현 두산 코치)가 세운 9연타석 안타였다.

이병규는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면 신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욕심이 났다"며 "초구를 쳐서 나조차도 당황스러웠다"고 웃었다.

뒤이어 "기록도 새로 쓰고 팀도 이겨서 기분 좋다. 부상 때문에 뒤늦게 팀에 합류한 탓에 더 도움이 되려고 집중하다 보니 안타가 나왔고, 그럴수록 자신감도 붙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로 LG는 전날 있었던 NC와의 첫 경기에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둔데 이어 2연속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10일 LG 이병규가 NC와의 경기 2회말에 10타석 연속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목동구장에서는 롯데가 홈팀 넥센에 6-2 승리를 거두며 전날의 1-3 패배를 설욕했다. 선발 쉐인 유먼은 시즌 9승(3패)째를 올려 더스틴 니퍼트(두산 9승3패), 양현종(KIA 9승1패)과 다승 공동 1위가 됐다.

SK와 맞붙은 삼성은 연장 10회 박석민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5-4로 승리, 선두 자리를 지켰다. 두산은 3타점을 올린 민병헌의 활약으로 한화에 6-2 승리를 거뒀다.

/편보람기자 kanun@metroseoul.co.kr

'79-0' '67-0'…농구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축구 2경기 146골…'승격 위한 촌극'

나이지리아 축구에서 2경기에 무려 146골이 터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10일 "나이지리아 아마추어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다"며 나이지리아 축구협회가 경기를 치른 네 팀에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8일 동시에 열린 플라테우 유나이티드와 아쿠르비FC의 경기, 폴리스마신과 바바이로FC와의 경기 스코어는 각각 79-0, 67-0을 기록했다. 특히 후반에 골이 쏟아졌다. 플라테우 유나이티드는 총 79골 중 72골, 폴리스 머신은 67골 중 61골을 후반에 넣었다.

승리한 두 팀은 승점이 같아 골득실에서 앞서야 최하위 프로리그인 네이션와이드로 승격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로의 점수를 확인하면서 경기를 펼친 끝에 이 같은 촌극이 벌어졌다.

상상하기 어려운 점수가 나오자 협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운 쇼"라고 규정하며 선수와 경기 관계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유순호기자 suno@

여자역도 변영미 北 첫 금메달

9일(현지시간)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역도 63kg급의 변영미가 금메달을 목에 건 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승엽 300호 홈런볼 구단 품

이승엽(37·삼성 라이온즈)의 세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이 구단에 기증된다.

삼성은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로지 회장이 2003년 1억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 홈런볼을 구단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증 행사는 11일 SK와의 대구 홈경기 때 열린다.

우즈 두바이 골프사업 손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두바이에서 추진하던 럭셔리 골프 사업을 포기했다.

10일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인 두바이 홀딩과 손잡고 약 5500만 달러(약 626억원)를 투자해 초호화 골프 리조트와 저택, 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던 우즈는 최근 이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10일

■잠실

NC	100	000	000		1
LG	002	000	42X		8

승=리즈(6승7패) 패=손민한(2승1패)

■목동

롯데	101	000	310		6
넥센	001	010	000		2

승=유먼(9승3패) 패=김영민(1패) ...

■대전

두산	002	010	012		6
한화	200	000	000		2

■대구

SK	000	000	130	0	4
삼성	300	000	100	1	5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행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사진)가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올 시즌 자신의 최다 연속 경기안타 기록을 '6'에서 '7'로 늘렸다. 타율은 0.272에서 0.271로 조금 내려갔다.

이날 추신수는 1회초 상대 선발투수 윌리 페랄타의 네 번째 공을 때려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팀은 0-2로 졌다. /조성준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Are you a student here, Jack?
B No, I'm not. I'm a teacher. You're a teacher, too, aren't you?
A Yes, I am. 저쪽에 저 여자분은 누구죠?
B I don't know who she is.

정답 Who is that lady over ther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생생영어팁

▶ Q: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세요?
A: I work for Google. 전 구글에 다녀요.

상대방의 직업을 물을 때 What do you do?라고 한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럼 '전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생각보다 쉽게 말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전 회사원입니다'라고 할 때는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I work for Google.처럼요.

사전에 나온 '회사원'이라는 뜻의 단어 office worker를 써서 I am an office worker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일반동사 과거시제

▶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행동을 얘기할 때 쓰며 '~했다'를 의미하고, 주어에 상관없이 과거형 동사를 쓰며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

call → called	play → played	clean → cleaned
walk → walked	talk → talked	finish → finished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cleaned my room this morning.
전 오늘 아침 제 방을 청소했어요.

2 Sunny lived in London last year.
써니는 작년에 런던에 살았어요.

3 My girlfriend and I saw a movie.
제 여자 친구와 저는 영화를 봤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monarth Premium paints are highly _______ to most stains and can be cleaned easily with soap and water.
(A) resistance (B) resisted
(C) resistant (D) resists

02 Because Legolas Compan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ustomer information, it has made data privacy a high _______.
(A) conformity (B) liability
(C) priority (D) seniority

01. [illegible]
해설 are 뒤에 부사 highly의 수식을 받는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C) resistant를 써야 한다.
어휘 be resistant to ~에 강하다, 잘 견디다 highly 매우 stain 얼룩
정답 (C) resistant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C) priority를 쓴다.
어휘 recognize 인식하다 importance 중요성 data privacy 정보 보호 [illegible] seniority [illegible]
정답 (C) priority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5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 (15초 답변)

때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zoo?
[illegible]

A [과거 경험 시점]
The last time I went to the zoo was in May.
[illegible]

[경험에 대한 내용]
I went to the zoo with my family on Children's Day. We saw many animals and had a good time.
[illegible]

[illegible]